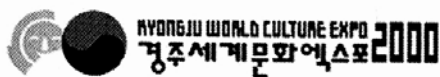


천년전 신라로의 시간여행



9월 1일 개막... 71일간 문화잔치

첨단과학기술-전통문화 '만남'

연극 '도술가' 오페라 '무영탑' 볼거리

'새 천년의 숨결'을 부처님의 땅 경주에서 만나보자.

지구촌 문화의 큰잔치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9월 1일~11월 10일까지 71일간 신라의 고도(古都) 서라벌에서 열린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의 접목을 통해 새 천년 문화의 향방을 가늠할 이번 엑스포에서는 특히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서라벌의 면모를 알리는 갖가지 주제 행사들이 준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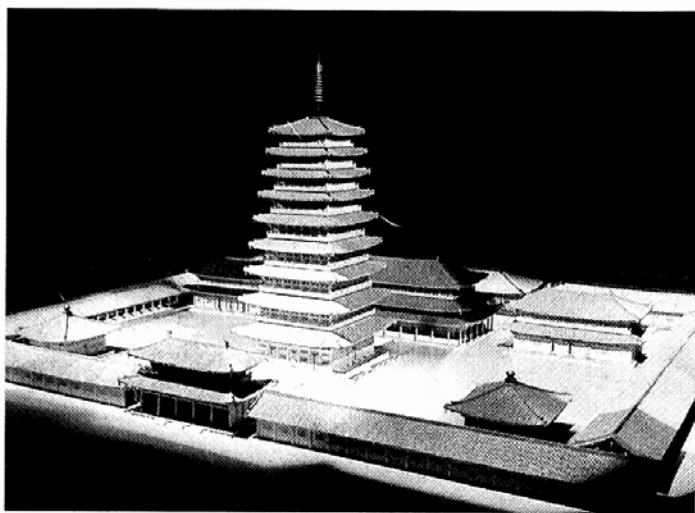
특히 이번 엑스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제 영상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법을 활용하여 천년 전 경주의 모습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한 관심을 모은다. 사이버 영상관에서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가상현실을 통해 '신라의 문화만남(왕경대로, 안압지)', '신라의 자부심(황룡사 9층 목탑)', '신라불교와의 만남(석굴암)', '신라의 정신세계(석굴암?)', '우리 문화의 황금기 신라' 등으로 구성해 당시 신라로의 생생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영상체험과 함께 입체음향, 꽃향기와 밤내음 등 냄새까지 느낄 수 있는 진일보한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문화 재현에 사용된다.

주제 전시 '동방의 빛을 따라서'는 천

년 전 동북아의 국제도시로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대륙과 해양의 앞선 문화를 거침없이 수용해 보다 새롭고 뛰어난 문화를 창조한 조상들의 비결을 배우는 장으로 구성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인 '새 천년의 숨결'에 걸맞게 고대 동서교역로로 따라 교류된 유라시아 대륙 각지의 진품 유품은 물론 그래픽, 레이저빔, 사진, 조형물 등을 비교 전시, 연출했다. '도입부', '실크로드와 신라(돈황석굴, 간다라 미술품, 장보고, 중국속의 신라)', '국제도시 경주(불국사, 석굴암, 황룡사)', '새천년의 문화' 등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주제 공연 '도술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연출 이은택)는 엑스포 공인내 백경공연장에서 매일 2차례(오전 11시, 오후 3시) 60분간 공연된다. 이 작품은 신라의 시인 월명(月明)대사의 사상을 차용해 동서양의 이분법적 구도속에서 상호 이질적으로 인식된 20세기의 문화를 극복하고, 동서양의 충돌과 공존이란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탐색하는 총체극이다. 엑스포에 앞서 서울과 밀양에서 공연돼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특별행사로 9월 29일부터 10월 8일 경주시내 문화유적지에서는 지역 정상급 성악가 등 271명이 출연하는 창작



4차원 입체영상 '황룡사 9층탑'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이버 영상관에서 선보일 주제 영상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는 기존의 3차원세계를 구현하는 3D기술에서 한발짝 나아가 4차원을 구현하는 입체영상 기술이다. 정부로부터 80여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제작된 '서라벌의 숨결속으로'는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김동현교수의 사학적 고증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가상현실기술이 만나 이루어졌다. 가상현실 시스템 속에 관람객을 쓰고 들어가면 높이 80m의 황룡사 9층 목탑은 물론, 유리로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석굴암 안의 11면 관음보살상 등 장엄하고 아름다운 우리 불교문화를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서 볼 수 있다.

오페라 '무영탑'이 공연되며, 헤초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을 토대로 그 여행길을 미로로 구성한 '천축국 대탐험전'은 외나무다리 건너기, 페타이어 통과하기, 암벽등반, 퀴즈광장 등을 통해 파미르 고원을 넘어 귀환하던 헤초스님의 의지와 용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엑스포기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전도 눈여겨 볼 만하

다. 일곱무늬수막새(人面瓦當) 등 국내 12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4백여점의 기와와 동물문, 반와당 등 중국 일본의 5개 기관이 분관중인 기와 5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사원에서 출토된 기와 70여점을 시대순으로 분류해 사원의 품격변화와 특징을 보여주고,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를 통해 신라기와의 변천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opia.com)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전국 7개 도시 순회 자선공연에서 두 손 모아 남북의 통일을 기원했다.

불교 소년소녀 합창·무용단 통일기원 전국순회공연 '희향'

대한불교소년소녀 합창·무용단이 2일부터 15일까지 북한어린이의료장비 및 기초 의약품 지원을 위한 '전국 순회 자선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통일, 그날을 위해'란 주제로 제주, 광주, 서울 등 7개 도시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반야심경' '절에 갔었네' 등 찬불가와 국내의 민요 20여곡이 연주됐다. 특히 15일 리틀엔젤스예술관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에서는 무대위의 어린

이합창단과 1천여명의 관객들이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되새기는 감동적인 무대가 연출됐다.

이 공연을 기획한 불교교육연구원 황학현원장은 "이번 공연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 1월 일본, 대만 등 동남아 순회공연이 계획돼 있다"며 "한국민요와 찬불가를 중심으로 해외 불교 포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opia.com)

국악 FM 방송국 12월 개국

불음포교에도 한 몫

빠르면 10월부터는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라디오만 틀면 흥겹고 신명나는 국악과 불교음악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국악만 전문적으로 내보내는 '국악FM방송국(99.1MHz)'이 10월 시범방송을 거쳐, 12월 개국 때 불음 포교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악원은 7일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국악FM방송국이 2개월간의 시범방송을 거쳐 12월 정식 개국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국악FM 방송국의 개국은 98년 4월 문화관광부가 국악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국 설립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5개월 만의 성과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 들

어설 70평 규모의 국악FM방송국은 10월부터 하루 6시간 시범방송을 하며, 12월 정식 개국 후에는 하루 12시간씩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방송을 내보낸다. 또 남원국립민속국악원과 케이틀을 연결, 남원시 등 전북 6개 시·군에도 2001년 6월부터 전파를 송출할 계획이다. 방송은 정악, 판소리 등 국악이 주가 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소개와 다락(茶樂), 국악교성곡 등 불교 음악도 곁들여진다.

국악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 음악은 우리 민족음악의 정신적 근원"이라며 "불교음악 가운데 특히 국악적 요소가 강한 현대의 교성곡과 찬불합창곡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을 전파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전주박물관 '남원 역사문화전' 9월3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남원의 역사문화전'을 9월 3일까지 연다.

이 전시회에는 보물 제420호인 실상사 백장암 청동은입사함으로 비롯, 보물 제1198호 기묘제현수첩(己卯譜賢手帖) 등 기존 문화재와

개인 소장품 300여점이 선보인다. 또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집자리 등을 통해 남원의 생성과 발전을 조명하는 고고분야 전시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진 찬란한 불교문화를 실상사와 단복사지 등에서 발굴된 유적을 통해 소개한다. (063)223-5652

한국 인쇄문화 우수성 '체험'

원주한지문화제 2000

9월 2~6일 치악예술관 등서 '전통종이전' '한지의상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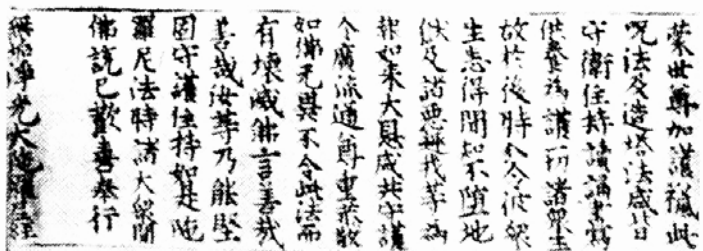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세계문화유산인 <판만대장경>은 우리가 자랑하는 인쇄문화유산이다. 여기에 전통 한지 제작기술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종이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원주한지문화제 2000'이 9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주 치악예술관 일원에서 열리는 것.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전통종이전, 한지의상전, 한지공예전 등의 전시행사와 15세기 대동여지도 제작, 전통한지 및 오색한지프

기 등 한국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특히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와 대장경문화학교가 함께 마련하는 특별체험행사 '원주 한지와 한국목판 인쇄문화의 만남전'은 원주한지에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을 결합시킴으로써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행사에는 대장경문화학교 이산각연구소가 재현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과 <신라향가>, <고려가요>, <판만대장경> 탁본이 선보이며, 민화, 고지도 축쇄본 등도 전시된다. 또한 관람객들이 현장에 마련된 전시목판으로 전통방식에 따라



이전 행사기간중 '원주 한지와 한국목판 인쇄문화의 만남전'에서는 이산각연구소가 재현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을 한지에 인쇄하는 등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반야심경>, <화엄경변상도>, <부모은중경>, <제망매가>, <처용가> 등을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며, 인쇄작품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행사에 앞서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한 홍보도우미단은 23일부터 서울 시청앞과 대학로, 인사동, 탑골공원 등에서 '한지사랑 서울시민 자전거 대장경'을

개최하고, 26일부터 전야제가 열리는 9월 1일까지 한지사랑 강원도 자전거 대장경을 갖는다.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립한지박물관 유치와 한지테마파크 조성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원주를 세계적인 한지문화의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033)748-1366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인들이 어요면 짜워 물러치는 '피'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아플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말은 번번 근육통 무릎 걷기 요실금 생리통 관절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협심증 당뇨병 우울증 간질 지방간 통풍 전립선염

심천 박남희 지음 | 값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

철학박사 혜江 朴永玉 지음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의 영험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 박해강 -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영가생생발원인 천도재를 올릴 때만 지장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며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현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늘과 땅이 울리고 햇속 깊은 곳,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라는 음성! 지장보살님시여! 현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액과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이 나의 업이려니 하고 체념할 뿐, 다른 돌피구를 찾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세에서 받는 고통 가운데 50%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전생의 업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인연법과 수많은 조상님의 영향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자들의 답답함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어떠한 글과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부처님이 육되지 않기를 믿고 또 믿 부탁드립니다.

저서/초발심자의 기초교리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박영욱(혜강) 합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 (02)917-3854, 917-0408 FAX : (02)3675-3854